

東醫壽世保元 性命論註解에 관한 研究

金大性*·洪淳用*

I. 緒 論

東武 李濟馬의 四象說은 天·人·性·命의 四元構造로 이루어졌으며 이중에 性·命이 根幹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性·命의 四象說의 概念을 把握하는 것이 四象醫學을 理解하는 入門의 捷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李濟馬의 思想과 學問의 世界를 理解하고자 하면 반드시 四象의 範疇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東武가 말한 性·命은 儒란 土壤에서 生成된 것이며 이에 李濟馬는 性命과 知行의 四元構造의 基幹要素로서 天機의 四象과 人間의 四象으로 具現시켰다. 이와같은 哲學的 思惟로서 性命論이 이루어졌고 또한 人間의 體質도 太少陰陽人으로 分類하였다. 그러나 性命論의 內容이 매우 어려워 理解하기 困難하므로 그 當時 後學들을 위하여 東武公이 직접 註解를 했다고 한 것을 著者는 여러가지 文獻을 參考하여 本 研究를 試圖한 것이다.

II. 研究 方法

註解 內容의 研究를 돕기 위하여 字解·參考·

各註를 달고 解釋하였다.

1. 原文은 《東醫壽世保元》에 準하였고, 註解한 部分에 대하여만 記述하였다.

2. 原文 및 各註에 나타난 出典記號는 用淳用·李乙浩 著 《四象醫學原論》에 따라서 表記하였다.

3. 註解에 관한 內容은 아래 3種의 文獻에서 引用하였다.

가. 洪淳用: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註解》, 大韓韓醫學會誌

나. 朴爽彥: 《東醫四象大典》

다.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4. 字解는 本文의 뜻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取擇하였다.

5. 解釋은 註解의 句讀에 充實하였고 理解를 돕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를 이를 하였다.

III. 研究 內容

『原文』

天機有四하니 一曰 地方이요 二曰 人倫이요 三曰 世會요 四曰 天時니라. [性命論 1]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註解』

地方¹⁾은 卽 少陰이니 兌上絶 西方也요 人倫²⁾은 卽 太陰이니 坎中連 北方也라. 此兩方은 闕闕左上하니 地有餘 天不足之方이니라. 故로 一曰 地方云하니라. 蓋 太陰人 少陰人之上 焦不足은 卽 天不足 西北而然卽 右耳目이 不如左耳目이니라. 右耳目은 太陰 少陰之 耳目이 不如 太陽 少陽之 耳目이니 視聽之力이 不及也이라.

『字解』

兌: 태괘 태 ㉠ 八卦의 하나. 곧 三三. 못(澤)을 象徵하며 西方에 配當함.

㉠ 六十四卦의 하나. 志操가 바르고 굳어 事物이 잘 亨通하는 象.

坎: 감괘 감 八卦의 하나. 곧 三三. 方位로는 正北, 物質로는 물에 配當함.

闕: 닫을 함. 門을 닫음. 「闕戶謂之坤 闕戶謂之乾」《易經》

※ 闕闕: 닫음과 엮.

『參考』

1. 文王八卦方位:

易傳曰.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



2. 八卦取象歌:

☰ 乾三連 ☷ 坤六斷
☳ 震仰盂 ☱ 兌覆碗 ☲ 離中虛 ☵ 坎中滿
☱ 兌上缺 ☳ 巽下斷

『解釋 1』

地方은 곧 少陰이니 文王卦圖에 의하여 兌卦에 屬하여 西方을 意味하며 人倫은 곧 太陰이니 坎卦에 屬하고 北方을 意味한다. 그래서 西北 兩方의 兌·坎卦는 邊方이 열려 있어 地는

有餘하나 天不足한 故로 一曰 地方이라 한 것이다.

太陰·少陰人이 上焦가 不足한 것은 天氣가 不足하여 西北方이 열려있기 때문에 右耳目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太·少陰人의 右耳目은 太·少陽人에 比해 耳目의 視聽力이 不足한 것이다.

『註解』

世會³⁾는 卽 少陽이니 巽下絶 東方也요 天時⁴⁾는 卽 太陽이니 離虛中 南方也라.

此兩方은 闕闕右下하니 天有餘 地不足之方이니라. 故로 四曰 天時云하니라.

蓋 太陽人 少陽人 下焦不足은 卽 地不滿東南而然卽 左手足이 不如右手足이니라.

左手足은 太陽人 少陽人之手足이 不如 太陰人 少陰人之手足이니 行去之力이 不及也니라.

『字解』

巽: 손괘 손 ㉡ 八卦의 하나. 곧 三三. 事物을 잘 받아들이는 德을 나타내는 象. 方位로는 東南間. 「帝出呼震, 齊乎巽」《易經》

㉡ 六十四卦의 하나. 柔順卑下의 象.

離: 이괘 리 ㉢ 八卦의 하나. 곧 三三. 陽중에 陰이 있어 환한 象. 「離者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易經》

㉢ 六十四卦의 하나. 事物이 모두 亨通하는 象.

闕: 열 벽, 문을 엮.

※ 闕闕: 엮과 닫음.

『解釋 2』

世會는 곧 少陽이니 巽卦에 屬하고 東方을 意味하며, 天時は 곧 太陽이니 離卦에 屬하여 南方을 意味한다. 그래서 東南 兩方의 巽·離卦는 邊方이 열려 있어 天有餘하고 地不足한 故로 四曰 天時라고 한 것이다.

太陽·少陽人이 下焦가 不足한 것은 곧 地氣가 充滿하지 못하여 東南方이 열려 있기 때문에 左手足이 不如 右手足이라 太·少陰人의 手

足에 비해 行去之力이 不足한 것이다.

『原文』

耳聽天時하며 目視世會하며 鼻嗅人倫하며 口
味地方이니라. [性命論 3]

『註解』

耳는 屬神⁵⁾ 하니 無形之物故로 能聽天時⁶⁾
輕清 無形之聲하고

目은 屬靈⁷⁾ 하니 有像之物故로 能視世會⁸⁾
浮動 有像之色하고

鼻는 屬魂⁹⁾ 하니 無跡之物故로 能嗅人倫¹⁰⁾
沈靜 無跡之像하고

口는 屬魄¹¹⁾ 하니 有質之物故로 能味地方¹²⁾
重濁 有質之滋也니라.

『解釋 3』

耳는 神에 屬하니 形體나 事物이 아니요 다
만 自然界의 現象을 感知할 수 있고 無形의
聲音도 들을 수 있으며, 目은 靈에 屬하니 有
像之物인 故로 世上에서 流動하는 모든 物體
와 色을 볼 수 있고, 鼻는 魂에 屬하니 痕迹
이나 事物은 말지 못해도 能히 人倫의 沈靜에
는 感知할 수 있어 無跡之像이라 하였고, 口는
魄에 屬하여 有質 有物하므로 能히 地方을 맛
볼 수 있어 重濁하고 質重한 것은 浸滋하게 된
다고 하였다.

『原文』

肺達事務하며 脾合交遇하며 肝立黨與하며 腎
定居處니라. [性命論 5]

『註解』

肺主呼¹³⁾ 하니 呼則 必有 應對之理라 以其
直升之 哀力¹⁴⁾ 으로 能達事務之欺也¹⁵⁾ 요

脾主納¹⁶⁾ 하니 納則 必有 盈虛之理라 以其
橫升之 怒力¹⁷⁾ 으로 能合交遇之侮也¹⁸⁾ 요

肝主吸¹⁹⁾ 하니 吸則 必有 致來之理라 以其
放降之 喜力²⁰⁾ 으로 能立黨與之助也²¹⁾ 요

腎主出²²⁾ 하니 出則 必有 竭盡之理라 以其

陷降之 樂力²³⁾ 으로 能定居處之保也²⁴⁾ 니라.

『解釋 4』

肺는 呼하는 것인 바 天下 萬物이 呼하면 반
드시 對應되는 勢力이 擡頭하는 法이니 이는
肺가 陽을 噴出하려는 것을 防止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肺는 이와같은 作用을 하므로서 直升
之哀力으로 能히 事務에 通達하게 되어서 事務
에서 詐欺를 당하지 않게 하여 肺의 機能을 完
成시키는 狀態이다.

脾는 歸納하는 作用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納의 作用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가득차고
허무해지는 法이 있기 때문에 太陽人의 肺氣는
怒力으로 橫升하여 脾氣와 和合되어야 交遇에
能合하므로서 交遇에서 兪心여김을 당하지 않
을 것이라 하였다.

肝은 吸하는 것인데 天下 萬物이 吸하면 반
드시 致來하는 理致가 있게 마련이니 喜力으로
서 그 肝氣를 放降하게 하므로서 肝이 整立되
어 黨與의 도와움이 온다고 하였다.

腎은 排出하는 것으로 天下 萬物이 出한 즉
반드시 그 內容이 竭盡하게 되므로 樂力으로
서 그 肝氣를 陷降케 하여 腎을 安定하게 하
면 竭盡하지 않도록 하여 居處를 保全하게 되
는 것이다.

『原文』

頤有籌策하고 臆有經綸하고 膻有行檢하고 腹
有度量이니라. [性命論 7]

『註解』

頤屬津海니 耳之根本²⁵⁾ 而 耳屬肺則 太陰人
은 肺小故로 耳無聽力이나 卓然自有 嗅思之才
니 籌策²⁶⁾ 也요

臆屬膏海니 目之根本²⁷⁾ 而 目屬脾則 少陰人
은 脾小故로 耳無視力이나 但然自有 味辨之才
니 經綸²⁸⁾ 也요

膻屬油海니 鼻之根本²⁹⁾ 而 鼻屬肝則 太陽人

은 肝小故로 鼻無嗅力이나 便然自有 聽學之才
니 行檢³⁰⁾也요

腹屬液海니 口之根本³¹⁾而 口屬脾則 少陽人
은 腎小故로 口無味力이나 恢然自有 視問之才
니 度量³²⁾也니라.

『解 釋 5』

頤에는 津海가 있으니 그 津海는 耳의 根本
인데 耳는 肺에 屬해 있는 즉 聽力의 根本은
肺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太陰人은 肝大肺
小한 까닭에 耳의 聽力은 無力하게 되나 特別
히 天性의으로 鼻嗅로서 思索·沈默·默考力등
의 嗅思之力이 豊富하므로 自然히 籌策이 많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太陰人의 特徵인 것
이다.

臆에는 膏海가 있으니 그 膏海는 目의 根本
이고 目은 脾에 屬해 있는 즉 視力의 根本은
脾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少陰人은 腎大脾
小한 까닭에 目의 視力은 無力하게 되나 特別
히 天性이 口辨으로서 味辨을 떨치는 才能이
있으므로 經綸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少
陰人의 特徵인 것이다.

臍에는 油海가 있으니 그 油海는 鼻의 根本
이고 鼻는 肝에 屬해 있는 즉 嗅力의 根本이
肝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太陽人은 肺大肝
小한 까닭에 鼻의 嗅力은 無力하게 되나 特別
히 天性이 世上일에 能熟한 사람으로서 聽學하
는 才能이 있어서 行檢을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太陽人의 特徵인 것이다.

腹에는 液海가 있으니 그 液海은 口의 根本
이고 口는 腎에 屬해 있는 즉 味力의 根本은
腎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少陽人은 脾大腎
小한 까닭에 口의 味力은 無力하게 되나 特別
히 天性이 넓고 餘裕가 많으므로 視問하는
才能이 있으므로 度量을 잘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少陽人의 特徵인 것이다.

『原 文』

頭有識見하고 肩有威儀하고 腰有材幹하고 臀
有方略이니라. [性命論9]

『註 解』

頭之賦海는 神之所舍³³⁾也라 神之爲氣 光明
而鑑造化하니 自有識見³⁴⁾이니라. 則此句之論은
太陽人言而 特舉 少陰人言者는 蓋少陰이 出太
陽而 奪其母神故也니라.

肩之膜海는 靈之所舍³⁵⁾也라 靈之爲氣 嚴肅
而酷態度하니 自有威儀³⁶⁾이니라. 則此句之論은
少陽人言而 特舉 太陰人言者는 蓋太陰이 生少
陽而 假其子靈故也니라.

腰之血海는 魂之所舍³⁷⁾也라 魂之爲氣 顯達
而奇行裝하니 自有才幹³⁸⁾이니라. 則此句之論은
太陰人言而 特舉 少陽人言者는 蓋少陽이 出太
陰而 憑其母魂故也니라.

臀之精海는 魄之所舍³⁹⁾也라 魄之爲氣 盛大
而壯經營하니 自有方略⁴⁰⁾이니라 則此句之論은
少陰人言而 特舉 太陽人言者는 蓋太陽이 生少
陰而 恃其子魄故也니라.

『字 解』

恃: 믿을 시, 믿어 의뢰함.

『解 釋 6』

頭의 賦海는 神이 居住하는 곳으로서 神이
氣化하게 되면 光明한 밝은 빛으로서 마치 거
울에 비치는 것처럼 비치는 調和가 있으니 스
스로 識見을 創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論한 것은 本是 太陽人을
가르켜서 말한 것인데 特別히 少陰人을 가르켜
論한 것은 太陽이 少陰을 出하므로 그 母神을
奪取하면서 生하기 때문이다.

肩의 膜海는 靈이 居住하는 곳으로서 靈이
氣化하게 되면 그 性品은 더욱 酷毒하게 되므
로 여기서 自然히 威嚴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다. 그러나 이와같이 論한 것은 少陽人을 가

르켜서 말한 것인데 特別히 太陰人을 가르켜서 論한 것은 太陰이 少陽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그 子靈을 빌려서 生하기 때문이다.

腰의 血海는 魂이 居住하는 곳으로서 魂이 氣化하게 되면 환히, 밝게, 높게 사무쳐 나타나서 奇異하게 꾸미는 것이니 自然히 才幹이 있는 것이다. 이 句節에서 論하는 바는 太陰人을 指稱하는 것인데 特別히 少陽人을 가르켜 말하는 것은 少陽에서 太陰이 나오는 것인 즉 太陰은 그 母魂에 依支하는 까닭이다.

腎의 精海는 魄이 居住하는 곳으로서 魄이 氣化하게 되면 크고 旺盛하게 하여 經營을 活潑하게 하는 것인 즉 여기에서 스스로 方略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 句節에서 論하는 바는 少陰人을 指稱하는 것인데 太陽人을 特別히 專論한 것은 太陽이 少陰에서 生하므로 그 子魄에 依支하여 生하기 때문이다.

『註解』

以我之短으로 學彼之短하고 以我之短으로 教彼之短하면 同時助成하여 功歸正故로 曰 無奪·無侈·無懶·無竊⁴¹⁾之謂也이라.

『字解』

奪: 빼앗을 탈, 억지로 빼앗음.

侈: 사치할 치, 분에 넘치게 호사함.

懶: 게으를 라, 나태함.

竊: 훔칠 절, 절취함.

『解釋 7』

반드시 나의 短點을 補充하기 위하여는 남의 長點을 본받아서 배우고 나의 長點을 가지고는 남의 短點을 가르치라고 하였으니 이렇게만 한다면 서로의 完成을 도와주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正道로 돌아갈 것이니 이러한 것을 일컬어 無奪·無侈·無懶·無竊이라고 하였다.

『原文』

耳目鼻口는 觀於天也요 肺脾肝腎은 立於人也

요 領臆臍腹은 行其知也요 頭肩腰腎은 行其行也니라. [性命論 11]

『註解』

天機之所當에 無處不應之謂也요 人事之所行에 無時不用之謂也요

心之所恃에 發其行之謂也요 身之所處에 達其行之謂也니라.

『解釋 8』

耳目鼻口가 天機와 相應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天機는 그 行이 어디에 처하든지 서로 應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天機가 運行하는대로 作用하는 것이다.

肺脾肝腎은 人事가 行하는 데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行하는 일이 잠시라도 作用하지 않는 時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領臆臍腹에서는 籌策·經綸·行檢·度量과 같은 心的인 作用이 일어나는 바 이것은 모두 知의 所發인즉 人間의 心理가 依支하는 대로 知를 發한다고 한 것이다.

頭肩腰腎에서는 識見·威儀·才幹·方略들이 行하여지는 것인 바 여기에서는 領臆臍腹에서 이루어진 知의 身이 그 몸으로서 行하여지는 것으로 行할 일을 實際로 達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原文』

天時는 大同也요 世會는 大同也요 人倫은 大同也요 地方은 大同也니라. [性命論 12]

『註解』

仁義禮智⁴²⁾는 與天으로 同하니 是無變易之謂也로되 因時制宜하니 如羽橫空也요

忠孝友悌는 與世로 同하니 是有齊立之謂也로되 從俗性化하니 如火炎上也요

農工商虞⁴³⁾는 與人으로 同하니 是無休息之謂로되 作類乘便하니 如鱗縱壑也요

田宅邦國은 與地로 同하니 是有興盛之謂也로 되 隋錄應變하니 與水趨下也니라.

『字解 9』

悌: 공경할 제, 형 또는 존장을 공손히 잘 섬김.

※ 友悌: 兄悌 또는 夫婦 사이에 友愛가 있거나 義가 좋음.

虞: 근심할 우, 벼슬이름 우

※ 虞人: 山林沼澤을 맡은 벼슬

鱗: 비늘 린, 물고기·뱀같은 것의 껍질을 보호하는 角質의 작은 彫刻. 전하여 비늘을 가진 動物. 特히 魚類.

壑: 구렁 학; 두산 사이의 오목한 곳. 골.

趨: 향할 추, 마음이 쏠려 향하여 따름.

※ 趨下: 낮은 곳으로 감. 물이 흘러 내려감.

『解釋 10』

仁義禮智는 人間이 誕生할때 天賦로서 받은 것이므로 天과 더불어 同一하니 이것은 바뀌거나 變함이 없는 것으로서 마땅히 制御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새가 空中에서 날때 날개로서 上下緩速의 作用을 조종하는 것처럼 仁義禮智 또한 그와같이 因時制宜하는 것이므로 天時와 大同하게 되는 것이다.

忠孝友悌는 世會와 더불어 同一하니 이것은 가지런히 서서 있다는 것으로서 人事에는 世俗대로 좇아 性化하는 것이니 마치 타고르는 불꽃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農工商虞는 人倫과 더불어 同一한 것이니 이것은 休息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生物의 種類대로 짝을 지어 便安한 것을 擇하는 것이니 마치 물고기가 골을 따라 헤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田宅邦國은 地方과 더불어 同一한 것이니 이것은 興盛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時代와 때에 따라서 變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니 마

치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註解』

順德者는 人之所贊也요 逆失者는 目之所欺也요 正學者는 思之所權也요 邪陰者는 神之所怒也니라.

『解釋 11』

德에 順하는 것은 사람마다 贊成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德은 天時에 應하는 것인데 天時は 天機의 中樞이고 仁義禮智가 또한 여기에 屬하므로 그와같이 極讚하였다.

逆失이란것은 世會에서 陰陽이 交會할 때에 陽이 過多하여서 散失되는것을 말하는 것인데 天道의 世會는 人間에 있어 目的 視力을 生하는 靈이 생기는 곳으로 만일 過亢한 陽때문에 逆失하게 되면 이것이 目を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인 즉 交遇에서 忠孝友悌가 齊立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世會에서 陽을 逆失하여서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農工商虞는 自然 그대로의 人間으로서 올바르게 學問만 한다면 嗅思之力이 강한 것과 같은 偏僻이 알맞게 生長할 것인 즉 嗅思라고 할 지라도 正學앞에서는 屈할 것이므로 올바르게 學問하는 것은 思之所權이라고 했다.

田宅邦國은 天機에 있어서는 地方이요 人事에 있어서는 居處인 즉 이곳은 邪陰이 居處하는 곳이다. 그런즉 이것들은 陰에 附生하는 神을 壓迫하려는 放縱을 犯하기 쉬우므로 田宅邦國에 이러한 警戒를 한 것이다.

『註解』

明進者는 聖之攸畏也요 暗退者는 景之攸辱也요 德謙者는 仇之攸恥也요 妖誇者는 惠之攸憎也니라.

『字解』

攸: 바 유, 어조사. 所와 뜻이 같음.

畏: 두려워할 의, 삼가고 조심함. 敬畏함.

景: 빛 경, 햇빛. 양지

仇: 원수 구, 원한이 되는 사람.

妖: 재앙 요, 災禍의 前兆.

『解釋 12』

명이 나아가는 것을 凡人은 좋아하지만 聖人은 陰이 絶滅할까하여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暗이 後退하는 것은 表面으로 보면 景(큰빛)의 前進같지만 사실상 景의 消滅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景을 오히려 辱되게 한다고 하였다.

德 이 사람이 謙遜한 것은 一見 卑屈한것 같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알고있는 怨讐는 도리어 두려워 한다고 하였고, 妖邪하고 誇張하여 虛榮에 들떠있는 사람은 施惠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미워한다고 하였다.

『原文』

耳好善聲하며 目好善色하며 鼻好善嗅하며 口好善味니라. [性命論 15]

『註解』

善聲은 非清雅之聲이요 善色은 非華麗之色이요 善嗅는 非芳香之嗅요 善味는 非美甘之味也니 此等之事는 令人反爲 聾盲塞缺之病이니 不足爲稱也니라.

『解釋 13』

善聲은 맑고 아리따운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清雅之聲은 肺氣 形成에 폐를 끼치는 까닭이요, 善色은 빛나고 아름다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華麗之色은 脾의 機能을 喪失하게 한다고 하였다. 善嗅라는 것은 꽃다운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芳香之嗅는 肝의 機能을 擴張시킴으로서 肝의 機能을 害할 念慮가 있기 때문이요, 善味란 감미로운 맛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美甘之味는 脾의 作用을 너무 돕는 즉 腎을 害할 念慮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와같은 聲色嗅味는 사람으로 하여금 聾, 盲, 塞, 缺과 같은 病에 걸리게 하는데 足한 것인즉 稱讚할 것은 못된다고하여 不足함을 말하였다.

『原文』

善聲은 順耳也요 善色은 順目也요 善嗅는 順鼻也요 善味는 順口也니라. [性命論 16]

『註解』

善聲은 是忠厚之聲이요 善色은 是勤檢之色이요 善嗅는 是信質之嗅요 善味는 是仁愛之味니라. 此等之事는 使人遠偷 聰明德慧之正이니 可爲所知也니라.

『字解』

偷: 훔칠 투. 도둑질함. 눈앞의 안락을 탐함.

『解釋 14』

善聲이라는 것은 忠誠스럽고 人情이 두텁다는 所聞이 들려오는 것이요, 善色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奢侈하지 않고 수수하게 生活하는 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요, 善嗅라는 것은 信用이나 物質의 品質이 믿음성있고 꾸밈이 없으며 거짓이 없는 것이요, 善味라는 것은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善行實이 있다는 뜻이다.

위와같은 人事들은 모두가 사람으로 하여금 눈앞의 安樂을 貪하는 것을 멀리하고 슬기롭고 道理에 밝으며 知慧와 德行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니, 이와같은 것은 마땅히 알고 行하여야 하는 바로 人間 精神이 要求하는 것도 이와같은 中庸之氣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原文』

肺惡聲하며 脾惡色하며 肝惡臭하며 腎惡味니라. [性命論 17]

『註解』

惡聲은 非殺伐之聲이요 惡色은 非醜陋之色이요 惡臭는 非腐爛之臭요 惡味는 非辛苦之味니

라. 此等之狀은 令人이 徒爲 掩閉杜吐之勞니 不足爲難也니라.

『字解』

醜: 추할 추. 언행이 더러움. 또 그러한 사람.

陋: 못생길 루. 보기 흉함.

※ 醜陋(추루): 추잡하고 비루함.

慥: 고달플 비. 피곤함.

掩: 가릴 엄. 안 보이게 하거나 막음.

杜: 막을 두. 틀어 막음.

『解釋 15』

惡聲이란 것은 金聲로서 죽이고 베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惡色이란 얼굴이 추잡하고 비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惡臭란 낡아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惡味는 맵거나 쓴맛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같은 狀態를 가르켜서 사람들이 聲色臭味의 醜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마치 吐氣가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덮어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 즉 非難한 價値도 없다고 하였다.

『原文』

惡聲은 逆肺也요 惡色은 逆脾也요 惡臭는 逆肝也요 惡味는 逆腎也니라. [性命論 18]

『註解』

惡聲은 是毀訪之聲이요 惡色은 是難悖之色이요 惡臭는 是陰害之臭요 惡味는 是偷盜之味니라 此等之狀은 使人空成 癡狂癩癧之患이니 可爲所憤也니라.

『字解』

毀: 헐 췌. 무너뜨림. 험담을 함.

※ 毀訪: 헐어 말함, 헐뜯음. 비방함.

悖: 어그러질 패. 도리에 거스름.

※ 悖亂: 謀叛을 일으킴. 正義에 어그러지고 正道를 어지럽힘.

癩: 미칠 전. 광증 전

癧: 문둥병 라. 나병. 천형병.

癩: 혹 류. 病的으로 내민 군살. 物件의 表面에 생기는 突起.

『解釋 16』

惡聲은 남을 헐뜯어 비방하는 소리요, 惡色은 亂暴한 行動이나 謀叛하는 빛을 보고 하는 말이요, 惡臭는 던지시 남을 썩치는 惡한 行動을 가르켜서 말하는 것이요, 惡味는 남의 物件을 몰래 훔치거나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러한 形狀들은 공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병이나 문둥병같은 疾患을 일으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마땅히 삼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註解』

肺大⁴¹⁾는 呼散之氣가 太過也요 肝小는 吸聚之氣가 不足也요 肝大는 吸聚之氣가 太過也요 肺小는 呼散之氣가 不足也요 脾大는 納積之氣가 太過也요 腎小는 出放之氣가 不足也요 腎大는 出放之氣가 太過也요 脾小는 納積之氣가 不足也요.

『解釋 17』

太陽人이 肺大한 것은 肺의 내보내어 흩어버리는 기운이 太過한 까닭이요 肝小한 것은 吸收하여 모으는 氣運이 不足한 까닭이다. 太陰人이 肝大한 것은 吸收하여 모으는 氣運이 지나친 때문이요 肺小한 것은 내보내어 흩어버리는 氣運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少陽人이 脾大한 것은 歸納하여 쌓이는 氣運이 지나친 때문이요 腎小한 것은 내보내고 解放시키는 氣運이 不足한 때문이다. 少陰人이 腎大한 것은 내보내고 解放시키는 氣運이 지나친 때문이요 脾小한 것은 歸納하여 쌓는 氣運이 不足한 때문이다.

Ⅳ. 考 察

人間の 疾病을 治療하려면 먼저 人間の 身體 組織과 生理現狀을 알아야 하고 따라서 그것을 가장 옳고 正確하게 알면 人間이 생겨날 때의 天賦, 卽 先天에서 받은 特徵을 자세히 알 수 있는 方法부터 알아야 하니 人間이나 萬物은 모두 天氣로서의 命을 받아 가지고 태어난 바 天運에 四大時點이 있으므로 人間인 天機는 이 時點에서 그 지닌 바의 特徵을 받아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와같은 네가지 特徵을 타고 誕生하였으니 四象의 特質이 생겨나게 된 先天의 動機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四大要衝은 바로 地方, 人倫, 世會, 天時의 四大要因으로서 人物이 創造되며 또는 發展한다고 본 것이므로 李〃는 地方的인 特徵을 타고난 것은 少陰人이라고 하고, 人倫的 特徵을 타고난 것은 太陰人이라고 하고, 世會的인 特徵을 타고난 것은 少陽人이라고 하고, 天時的인 特徵을 타고난 것은 太陽人이라고 하여 四象의 基本을 세웠다.

東武는 그 概念이 지닌 內容을 밝히기 위해 이른 바 『性命論註解』를 남겨 놓았으니 이것을 詳察하면 四象說의 概念을 理解하는데 捷徑이 될 것이다.

1. 天機에 關한 事項

地方은 卽 少陰人 兌上絶 西方이고 人倫은 卽 太陰人 坎中連 北方으로 地有餘 天不足 地方으로 太·少陰人이 上焦가 不足하므로 視聽之力이 不足하게 되고 世會는 卽 少陽人 巽下絶 東方이고 天時는 卽 太陽人 離中虛 南方이라하여 天有餘 地不足 地方으로 太·少陽人이 下焦가 不足하여 行去之力이 不足하게 된다고

하여 人間の 耳目聰明과 手足의 強弱如何도 역시 天機에서 받은 바의 特徵인 體質如何에 의하여 明暗關係와 強弱關係가 決定된다는 것을 陳述한 것이다.

2. 耳目鼻口에 關한 事項

耳는 神에 屬하니 神은 形體가 없으므로 能히 天時가 生命과 精神을 創造하는 일을 代行하여 輕淸한 無形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였고, 目은 靈에 屬하니 靈은 像이 있는 것으로 像이라는 것은 有形과 無形의 中間이므로 감히 有無를 判別할 수 없는 境地를 말하는 것으로 能히 世會에서 萬物이 浮動하며 또 分裂할 때에 생기는 像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鼻는 魄에 屬하니 魄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來往하는 存在로서 神은 自體의 形을 갖추지 않은 것이지만 魄은 그 自體는 形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그 行續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能히 沈靜無跡한 人倫 狀態를 냄새 맡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口는 魄에 屬하니 魄은 實이 있는 物로서 能히 地方의 重濁한 滋養分을 입으로 맛본다고 하였다. 이는 輕淸無形한 神과 像이 있는 靈이 地方에 이르게 되면 中濁한 有質의 滋力으로 變하여 魄이 되는 것이니 여기에 神을 包藏하는 最終 段階의 作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肺脾肝腎에 關한 事項

肺에서는 呼하는 것으로 肺가 呼한다는 것은 肺속에서 陽이 噴出되려는 狀態를 말하는 것으로 呼하면 반드시 거기에 對應되는 勢力이 있는 理致이니 肺속에 陽이 充實되어 있는 狀態인 直升之哀力으로 事務가 속임수를 하려는것을 防止하려는 것으로 肺의 機能을 完成시키는 狀態라고 表現한 것이다. 脾는 納하는

臟器로서 陰陽을 造化시켜서 陽을 歸納하는 作用을 하는 것인데 納의 作用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陽盛陰虛하는 理致가 생기게 되므로 陰으로서 陽을 包圍할때 陽이 그 속에서 充溢하게 되면서 생기는 陽의 半撥力을 牽制하는 것으로 上向性이 있는 陽을 橫行토록 強要할 때 怒力이 일어난다 하니 이러한 橫行之怒力으로 交遇때에 생기는 陽의 過亢을 未然에 方止하게 하려는 것이다.

肝은 吸하는 것인데 天下 萬物이 吸하면 반드시 致來하는 理致가 있으니 肝이 吸하는 것은 反生하기 위한 準備作用을 意味하는 것으로 즉 下降하는 作用인 吸入하는 힘에서 解放되므로 反對로 上向하는 힘인 喜力으로서 薰與를 돕는다고 하였다. 腎은 내보내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出하면 그 內容이 반드시 竭盡하게 되므로 그 陷降之力을 利用한 樂力으로서 그 居處가 竭盡하지 않도록 對備해야 하는 것이라 하였다.

4. 領臆臍腹에 關한 事項

領은 바로 津海인데 그 津海는 또한 耳의 根本이다. 그런데 耳는 肺에 屬해 있는 즉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은 肺에 있으나 籌策을 形成하는 根本은 肝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肺小肝大하면 聽力이 不足하고 嗅思之力이 豊富하게 되므로 자연히 籌策이 많게 된다. 그런 즉 太陰人은 肺小하여서는 肺氣가 上行하지 못하므로 聽力이 不足하게 되는 것인 바 이것이 바로 太陰人의 特徵인 것이다. 臆은 바로 膏海인데 그 膏海는 또한 目的 根本이다. 그런데 目은 脾에 屬해 있는 즉 볼 수 있는 힘은 鼻에 있으나 經綸을 形成하는 根本은 腎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脾小腎大하면 視力이 不足하고 味辨之力이 豊富하게 되므로 자연

히 經綸이 많게 된다. 그러므로 少陰人은 脾小하여서 脾氣가 上行하지 못하므로 視力이 不足하게 되는 것인 바 이것이 少陰人의 特徵인 것이다.

臍는 바로 油海인데 그 油海는 또한 脾의 根本이다. 그런데 鼻는 肝에 屬해 있는 즉 결국 鼻의 根本은 肝이란 말이 된다. 그런즉 사람은 肺氣가 旺하면 聽學之才가 많을 것이고 肝이 旺하면 嗅思之力이 豊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太陽人은 肝小하므로 聽學之才가 많아서 品行을 端正하게 校正할 수 있는 것이다. 腹은 바로 液海인데 그 液海는 또한 口의 根本이다. 그런데 口는 腎에 屬해 있는 즉 결국 口의 根本은 腎이란 말이 된다. 왜냐하면 液海는 口의 根本인 바 그 味力은 腎의 歸藏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腎이 旺盛하여야만 味辨之才가 생길 것인데 少陽人은 腎이 不足하므로 味力은 적으나 脾大하므로 視間之才가 많고 따라서 度量이 많게 되는 것이다.

5. 頭肩腰臀에 關한 事項

頭에는 臑海가 있는데 一身의 神은 모두 여기에 居住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神이 氣化하게 되면 그 光明이 Lens의 作用을 하면서 스스로 識見을 創造하는 것이니 自然히 靜而思之하고 動而學之하는 識見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思索力과 記憶力과 判別力이 생기는 것이다. 肩에는 膜海가 있는데 이는 靈의 집으로 靈이 氣化하게 되면 그 性品이 嚴肅하게 되므로 그 態度가 大端히 嚴肅하게 되어 여기에서 禮儀의이며 法儀의인 威嚴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腰에는 血海가 있는데 魂이 居住하는 곳인 바 魂이 氣化하게 되면 德望이 높아서 世上에 드러나고 奇異하게 꾸미는 것인 즉 自然히 才

幹이 있는 것이다. 腎에는 精梅가 있는데 魄이 居住하는 곳인 바 魄이 氣化하게 되면 太(坎)를 旺盛하게 하여 가지고 經營을 活潑하게 하는 것인 즉 여기에서 스스로 方略이 생긴다고 하였다.

6. 四象人의 長短點에 關한 事項

본래 領臆臍腹에는 驕矜伐夸之心이 있고 頭肩腰腎에는 奪侈懶竊之行이 있어 人間에게는 모두 이러한 短點이 있다고 하였으나 반대로 籌策·經綸·行檢·度量과 같은 心性和 識見·威儀·才幹·方略과 같은 雄志도 있는 것이 四象的인 長點이나 我的 短點을 補充하기 위하여서는 彼の 長點을 學하고 我的 長點을 가지고서는 彼の 短點을 가르치라고 하였다. 그렇게만 한다면 함께 完成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正道로 돌아갈 것이니 無奪·無侈·無懶·無竊하라는 것이다.

7. 耳目鼻口·肺鼻肝腎·領臆臍腹·頭肩腰腎에 關한 事項

天機에 屬한 耳目鼻口는 마땅히 行하는 바 어디에 處하는지 서로 應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요, 人事에 屬한 肺脾肝腎은 그 行하는 바가 暫時라도 作用하지 않는 時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籌策·經綸·行檢·度量과 같은 心的인 作用에 屬한 領臆臍腹은 人間의 心理가 依支하는데로 知를 發한다고 하였다. 識見·威儀·才幹·方略등이 行하여지는 頭肩腰腎은 바로 領臆臍腹에서 이루어진 知의 命을 몸으로서 直接 達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人間은 天運대로 行하면 天機가 應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므로 人事之 所行에서 그대로 作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人事의 心持가 順天機하면 自然히 知能이 發하게 되고 따라

서 그 行實이 知대로 行하게 되어서 天機에 達할 것이므로 自然히 精神과 肉體가 健全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8. 人義禮智·忠孝友悌·農工商虞·田宅邦國에 關한 事項

人義禮智는 天機의 天時를 본뜬 것으로 人間의 誕生할때 天賦로서 받은 것인 바 바뀌거나 변함이 없이 天道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때그때 마땅히 制御하는 것이니 마치 鳥가 空中에서 날 때에 날개로서 上下緩速의 作用을 操縱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忠孝友悌는 天機의 世會를 본뜬 것으로 世會가 萬物의 生長過程에서 일어나는 모든 矛盾을 調節하여 齊立시키는 것으로서 人事의 交遇에 屬하니 人事는 從俗性化되는 것으로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며, 農工商虞는 天道의 人倫으로 暫時的 休息도 없는 것으로서 生活에 있어서는 天下 萬物이 種類대로 짝을지어 便安한 生活을 擇하게 되는 것으로 마치 물고기가 물을 헤엄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며, 田宅邦國은 天機의 地方을 본뜬 것으로 精神과 生命의 歸一處인 地方이 다음 때의 興盛을 위한 準備를 하는 것으로 世俗이 變하는데로 따라서 變하는 것이니 마치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東武는 여기에서 말한 仁義禮智와 忠孝友悌와 農工商虞와 田宅邦國이 天運대로 運行되어 지지 않는 것을 警戒하여 말하기를 德은 天時에 應하는 것으로 仁義禮智가 여기에 屬하므로 사람마다 養成한다고 하였고, 逆失이란 世會에서 陽이 散失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世會는 目的 視力을 生하는 靈이 생기는 곳으로 이러한 靈이 逆失하게 되면 바로 눈을 속이는 것과 같아 交遇에서 忠孝友悌가 齊立되지 못하면

世會에서 陽이 逆失하여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農工商虞는 自然 그대로의 人間生活로서 이들도 定着만 한다면 偏僻은 自滅하고 알맞게 生長할 것인 즉 嗅思라고 할지라도 正學앞에서는 屈伏하게 될 것이라 하였으며, 田宅邦國은 天機에 있어 地方이요 人事에 있어서는 居處이니 이 居處는 바로 兌坎의 陰氣가 居處하는 곳으로 兌坎에 의해 歸一한 神을 壓迫하려는 放縱을 犯하기 쉬우므로 神이 怒한다 하였다. 東武는 또한 말하기를 明이 나가는 것을 聖人은 陰이 絶滅할까하여 두려워하고, 暗이 後退하는 것은 景의 消滅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景을 辱되게 한다고 하였고, 德이 있는 사람이 謙遜을 行하는 것은 도리어 怨讐가 부끄러워 하는 것이요, 妖邪스럽거나 誇張된 사람은 施惠하는 것을 도리어 미워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敘述한 內容을 살펴보면 仁義禮智나 忠孝友悌나 農工商虞나 田宅邦國이 本은 天機에 依해서 이루어진 것인 바 人間이 이를 行함에 있어 天機에서처럼 大同化하지 못하고 各立하므로써 天機의 法度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가르친 것으로 明進·暗退나 德謙·妖誇도 陰陽의 進退에 不過한 것으로 사람이 自己의 知行如何에 의하여 能히 陰陽을 調節하여 各立하는 行動을 同化시키면 天機를 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라 하겠다.

9. 善聲·善色·善臭·善味에 關한 事項

善한 것이란 맑은 소리나 華麗한 色彩나 芳香性이 있거나 甘味로운 맛이 나는 것이 아니고, 忠盛스럽고 人情이 두터우며 勤勉하고 儉素하며 信用이 있고 믿음성이 있으며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같이 人事가 善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

금 도둑질하지 않고 슬기롭고 知慧로우며 德行을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 마땅히 알고 行하여야 할 바라 하겠다.

10. 惡聲·惡色·惡臭·惡味에 關한 事項

惡하다는 것은 짐승을 죽이거나 모습이 醜하다거나 색었다거나 맵고 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거나 亂暴하고 謀叛을 하려고 하거나 남을 해치려 한다거나 남의 것을 훔치려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공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癩狂癩癩와 같은 몸쓸 病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마땅히 삼가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11. 四象人 臟腑大小에 關한 事項

四象人의 臟腑構造가 太陽人은 肺大肝小하고 太陰人은 肝大肺小하며 少陽人은 脾大腎小하고 少陰人은 腎大脾小라 하였으니 肺大는 밖으로 내뱉어 흩어버리는 氣運이 지나친 것이요 肝小는 안으로 빨아들여 聚合시키는 機能이 不足한 것이요 肝大는 안으로 빨아들여 聚合시키는 機能이 지나친 것이요 肺小는 밖으로 내뱉어 흩어버리는 氣運이 不足한 것이다. 脾大는 안으로 歸納하여 쌓이게 하는 氣運이 지나친 것이요 腎小는 밖으로 排出하여 解放시키는 氣運이 不足한 것이요 腎大는 밖으로 排出하여 解放시키는 氣運이 지나친 것이요 脾小는 안으로 歸納하여 쌓이게 하는 氣運이 不足한 것이라 하였다.

V. 結 論

東醫壽世保元 性命論註解에 대하여 研究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이 비록 四象醫學의 基幹要素이긴 해도 東武哲學의 深奧한 眞理가 內包해 있으니만치 理解가 어려워 註解한 것이다.

2. 性命論註解는 主로 易理概念에서 解釋되었다.

3. 性命論註解는 性命論 內容을 理解하기 위하여 四端論·擴充論·臟腑論에서 많이 引用하였다.

4. 李濟馬가 性命論을 註解했다 해도 註解自體가 難解한 것이다.

5. 性命論의 內容을 充分히 理解할 수 있도록 많은 研究를 거듭해야할 것이다.

註

- 1) 地方: 「東西南北의 方位를 갖춘 地域」으로서 平面世界를 意味한다. 여기에는 山·河·川이 있는 國土·鄉里의 概念으로 表示한다.
- 2) 人倫: 1對1의 單數로 맺어진 人間關係를 意味한다. 父子·兄弟와 같은 血緣關係는 물론이거니와 君臣·夫婦·師弟와 같은 非血緣關係에까지 이르게 된다.
- 3) 世會: 社會集團으로 形成된 人間關係를 意味한다. 여기에는 政治·經濟등의 文化現象이 制度的으로 存在해야 하는 世界인 것이다.
- 4) 天時: 悠久한 歷史現象으로서의 現實性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事件이 있고 活動이 있다.
- 5) ……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出于耳而爲神 「臟腑論 4」
- 6) 太陽之耳能廣博於天時 「擴充論 2」

- 7) … 膏海之清出于目而爲氣 「臟腑論 5」
… 膜海藏靈 「臟腑論 13」
- 8) … 少陽之目廣博於世會 「擴充論 2」
- 9) 油海之清氣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臟腑論 6」 血海藏魂 「臟腑論 13」
- 10) 太陰之鼻能廣博於人倫 「擴充論 2」
- 11) 液海之清氣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臟腑論 7」 精海藏魄 「臟腑論 13」
- 12) 少陰之口能廣博於地方 「擴充論 2」
- 13) 肺以呼肝以吸 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 「四端論 12」
- 14) 哀氣直升 「四端論 13」
- 15) 少陽之肺行於事務而哀別人之欺己也 「擴充論 1」
- 16) 脾以納腎以出 腎脾者出納水穀之府庫也 「四端論 12」
- 17) 怒氣橫升 「四端論 13」
- 18) 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 「擴充論 1」
- 19) 肺以呼肝以吸 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 「四端論 12」
- 20) 喜氣放降 「四端論 13」
- 21) 少陰之肝行於黨與而喜別人之助己也 「擴充論 1」
- 22) 脾以納腎以出 腎脾者出納水穀之府庫也 「四端論 12」
- 23) 樂氣陷降 「四端論 13」
- 24) 太陰之腎行於居處而樂別人之保己也 「擴充論 1」
- 25) 舌之津海耳之根本也 「臟腑論 16」
- 26) 籌策: 利害關係를 헤아려서 生覺하는 辭. 一般的으로는 正確한 計算을 意味한다.
- 27) 乳之膏海目之根本也 「臟腑論 16」
- 28) 經綸: 일을 組織의으로 잘 짜내는 企劃性.
- 29) 膈之油海鼻之根本也 「臟腑論 16」
- 30) 行檢: 品行을 方正하게 하는 것.
- 31) 前陰之液海口之根本也 「臟腑論 16」
- 32) 度量: 너그러운 包容力.
- 33) 賦海者 神之所舍 「臟腑論 4」

參 考 文 獻

- 34) 識見 : 知識과 見聞.
- 35) 膜海者氣之所舍也 「臟腑論 5」
- 36) 威儀 : 威嚴있는 偉容.
- 37) 血海者血之所舍也 「臟腑論 6」
- 38) 才幹 : 재주로서의 活動的 能力.
- 39) 精海者精之所舍也 「臟腑論 7」
- 40) 方略 : 方法과 才略, 무슨 일을 하는 方法과 둘러대는 辭.
- 41) 擅心奪利也 侈心自尊也 懶心自卑也 慾心竊物也 「性命論 22」
- 42)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 皆出於慧覺 「性命論 32」
- 43) 士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 皆出於資業 「性命論 32」
- 44)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四端論 1」
- 45) 東武 李濟馬 (1837-1900) 著書 : 『東醫壽世保元』
1. 金敬琢 : 周易, 서울, 明文堂, 1984.
2. 金赫濟 : 周易, 서울, 明文堂, 1978.
3. 朴奭彥 :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
4.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社, 1979.
5.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6.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社, 1990.
7. 洪淳用 ·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9.
8. 張介賓 : 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2.
9. 金敬堯 : 東醫壽世保元중 性命論에 對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1, No.1, 1989.
10. 洪淳用 : 東醫壽世保元 性命論註解, 大韓韓醫學會誌, 42號, 1974.
11. 洪淳用 : 四象醫學의 基本原理, 東洋醫學, Vol.13, No.2, 1987.